

ㄷ不規則 (パッチムㄷを取って、+시다) ㄹ不規則 (パッチムㄹを우に変えて+ 시다) ◆特別な敬語の言葉 있다(いる)→ 계시다 먹다(食べる)→드시다, 잡수시다 마시다(飲む)→드시다 자다(寝る)→주무시다 말하다(話す)→말씀하시다 죽다(死ぬ)→돌아가시다 ◆'있으시다'と '계시다' 所有や存在の意味を表す言葉있다(いる、ある)の敬語には'있으시다'と '계시다'がある。 ▪敬語を使わなければいけない人の所有物やその人と関係がある人が主語の場合は'있으시다' ▪敬語をつかわなければいけない人が主語の場合は'계시다'を使う。 ◆'아프시다'と '편찮으시다' 敬語を使わなければいけない人のと '편찮으시다' '있으시다'と '계시다'と同じように敬語を使わなければいけない人の身体の一部が主語の場合は'아프시다' 敬語をつかわなければいけない人が主語の場合は'편찮으시다'を使う。 ◆主格助詞'-이/가(〜が), -은/는(〜は)'は'-께서'または'-께서는' -한테/에게(〜に)は'께'を使う。	살다 →사시다 사세요. 아름답다 →아름다우시다, 아름다우세요. 어머니가 집에 계세요. 어머니가 점심을 드세요/잡수세요. 아버지가 물을 드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다. 선생님께서서는 자동차가 있으십니다 (O) 선생님께서서는 자동차가 계십니다. (X) 할아버지, 손자가 있으십니까? (O) 할아버지, 손자가 계십니까? (X) 선생님께서서는 교실에 계십니다. (O) 선생님께서서는 지금 교실에 있으십니다. (X) 아버지, 팔이 아프세요? (O) 아버지, 팔이 편찮으세요? (X)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O)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X) →正しくはないが、最近ではこんな表現を使う人も増えている。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세요.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외출중이십니다. 어머니께 드릴거예요.
練習	
사장님은 한시간 전에 나갔다	사장님께서 한시간 전에 나가셨어요.
마이클씨, 할머니는 어디에 살아요?	
줄리아씨, 어머니는 키가 커요?	
아버지가 비빔밥을 먹었다.	
선생님의 어머니가 많이 아파요.	
선생님은 교실에 있어요.	
어머니가 만든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이 있겠습니다.	
할머니가 어제부터 많이 아프다.	
어머니가 피곤해서 일찍 잤다.	
우리 어머니는 눈이 예쁘다	
우리 선생님은 강남역 근처에 살아요.	